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우기전 편집국장:조선근

1995년도

각 위원장 및 부서장 결정

지난 11월 정기당회에서 임명

지난 11월 2일 모인 11월 정기당회에서 당회장 신성종 목사는 1995년도에 일할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당회산하 각 부서의 부서장과 지도교역자를 확정, 임명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신입 제직 및 권찰, 교사, 찬양대원, 각 위원회 실행위원들이 임명될 예정이다.

당회

· 서기 /우기전 부서기 /서동석

인사위원회 / 위원장 신성종

· 위원 /당회서기, 기획위원장, 행정위원장, 교구위원장, 재정위원장, 상임국장

기획위원회 / 위원장 노광현

· 위원 /당회서기, 행정위원장, 재정위원장, 편집국장, 기획실장, 사무국장, 서동석, 윤성철

행정위원회 / 위원장 김차생

· 동산부장 /김여순
· 상호회장 /김여순
· 기도원부장 /마성락, 지도 /김용기, 총무 /이태규

예배위원회 / 위원장 김재명 지도 최인근

· 예배부장 /김여순
· 성례부장 /박인건
· 안내부장 /김인관
· 영어예배부장 /이병학

찬양위원회 / 위원장 김은호 지도 현상민

찬양대	대장	지휘	반주	부대장
가브리엘	김의철	조신욱	백금옥	박홍규 한수미
임마누엘	남선우	장기범	김윤경	이계인 정명실
할렐루야	이종석	김영준	임효선	정홍식 전성자
아 멘	하대선	최광덕	송영미	조규호 김정순
호 산 나	신일순	송숙자	채은실	양선자
실 로 암	차신득	조신욱	임효선	박성명 나영실
시 온	이병학	이수철	조희영	손 철 박정순
오펜스트라	이종석	남궁조		안동현
웬 드 벨	정경자			김승옥
크로마하프	홍명순	송문영		이정자

전도위원회 / 위원장 강 협 지도 장경철

· 전도부장 /이하영,
· 직능부장 /김천채, 농어촌부장 /박인건,
충현전도대장 /김재명

선교위원회 / 위원장 남선우 지도 김창수

· 위원 /최성현 송환창 윤광일 안종욱 강봉수 양종섭

봉사위원회 / 위원장 마성락

· 구제부장 /김중구
· 경조부장 /김경철
· 차량부장 /우기전 차장 /김방진
· 부원 /윤명식 김차생 노광현 오진국 정하우 김광남
최명환 최인근 이조웅 김창수 이홍성 김용기

김광국 장경철 김옥윤 정양순 오인숙 오정숙

윤인숙 계선화 송향자

· 미화부장 /문홍구

제1교육위원회 / 위원장 정하우 지도 장경철

부서	부장	지도	부감(남)	부감(여)
영아부	김재균	정연희	최정남	서명숙
유아부	조인제	계선화	권명옥	이남숙
유치부	최상규	김정자	이동명	오화자
초등1부	정광호	황정순	진홍용	이중영
초등2부	임무천	송향자	강철형	백영기
초등3부	양종섭	김필수	김영수	최화자
초등4부	윤광일	장상기	김환기	김순실
초등5부	이인상	정광옥	전홍렬	김정자
초등6부	최명환	한용관	장주석	백영희
중등1부	최무길	김희수	김시주	조옥환
중등2부	윤성철	이종대	박철구	유호순
중등3부	김종구	이홍성	한송규	최 규
고 등 부	박영식	윤삼중	김단용	조혜순

제2교육위원회 / 위원장 손동운 지도 김창수

부서	부장	지도	부지도	부감(남)	부감(여)
대학부	최성현	장봉생	이준경	안석현	전명옥
청년1부	이하영	현상민		이형수	우순성
청년2부	엄필성	김정우		임기채	이경효
장년1부	손경수	이조웅		황의만	이순자
장년2부	문홍구	윤영탁		이종섭	박희지
장년3부	정운석	정규남		황영일	이의복
소 망 부	이창호	김찬곤	김정순	이만기	이명자
새가정부	이병옥	박정규		박덕양	김용숙
사랑부	송환창	임성환		김춘권	최미정
예신부	박인세	장봉생		장철환	이정현
예배다부	박상준	이준우		이지걸	박윤석
탁아부	강모용	변춘옥		이영일	민순애
영어부	이병학			이부성	장영옥

새가족위원회 / 위원장 오정현

지 도 홍창민 부지도 한영준

· 양육부 부장 오정현 부감 김구형 엄숙현
· 행정부 부장 오정현 부감 최윤덕 김경희

재정위원회 / 위원장 김영개

· 위원 /당회서기, 기획위원장, 행정위원장, 서일영, 안종욱,
김광남, 임봉남

건축위원회 / 위원장 최대원

· 위원 /김영개, 김방진, 우기전, 노광현, 오진국, 최무길,
김천채, 이창호, 임무천

감사위원회 / 위원장 박승준

· 위원 /이 훈 차신득 강 협 엄필성 손경수

편집국장 / 이종국 지도 조동원 부지도 변춘옥

· 위원 /강모용 안익태 정운석 박영식 이하영

교구위원회 / 위원장 강은원 지도 성봉환

교 구	교구장	지 도	부지도
제 1 교구	송환창	성봉환	오인숙 윤인숙
제 2 교구	김의철	이종대	최순복 정복인
제 3 교구	윤성철	한용관	계선화 최명자
제 4 교구	차신득	박정규	배옥인 정양순
제 5 교구	박승준	이홍성	송향자 박종화
제 6 교구	조선근	김광국	장혜순 이옥자
제 7 교구	최대원	최인근	장영자 최지혜
제 8 교구	박영식	조동원	황정순 박희자
제 9 교구	이창호	조운재	정연희 김정숙
제 10교구	엄필성	정광옥	현정남 김정순
제 11교구	강모용	김희수	신동자 손미희
제 12교구	김종구	임성환	김정자 임태주
제 13교구	김영길	김찬곤	김옥윤 오정숙
국제교구	이병학	장우천	최경미

교육훈련부 / 원장 강순용 지도 김광국

부 서	원 감	지 도
성경연구원	송기홍	장우천
유아원	김영길	민경애
조기원	조인제	이동귀
한국교회성장연구원	이종석	윤삼중
선교연구원	하대선	김창수
전도교육원	김재명	장경철

도서장학회 / 회장 김의철

· 위원 /박인세 정광호 남선우 김재균 이종국

교육연구소 / 소장 신성종 부소장 정하우

지도 이조웅 부지도 장우천 한영준

· 자문위원 /교육위원장 및 지도, 새가족위원장 및 지도,
교구위원장 및 지도, 교훈련부위원장 및 지도,
기획위원장, 교육국장, 기획실장
· 연구위원 /김창수, 홍창민, 김용기, 장경철, 장봉생,
윤영탁, 정규남, 김정우

제작회 / 서기 최기홍 부서기 황의만, 김환기, 이정우

집사회 / 회장 최기홍 부회장 한송규

권사회 / 회장 박영엽 서기 조혜순 회계 최정희

동서울노회 파송 총대 / 윤명식 노광현 우기전

95년도 신입 서리집사 및 권찰 후보자

교육 및 면접 실시

95년도 신입 서리집사 및 권찰후보자가 당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교육 및 면접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해당자는 필히 참석해야 한다. 불참자는 임명에서 제외된다.

-아 래-

- 1994. 11. 9(수) 12시 30분, 오후 8시 10분
- 1994. 11. 13(주일)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교육관

※ 수요일과 주일 중 한번만 참석하면 된다.

이 시간에는 24장로들과 네 생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생각해보겠습니다.

1. 24장로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4절) 24장로들이 누구나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교회의 대표들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신, 구약의 대표를 합하면 24가 됩니다. 이들이 바로 교회의 대표들이라는 점입니다. 교회의 대표들이 하나님의 주변에 앉았는데 24보좌 위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24라는 숫자는 중요한 숫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 계통의 24반열이 있습니다(대하 24:7-18). 하루가 24시간입니다.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인 교회의 대표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장로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첫째로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흰 옷이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하얀다는 말은 성결하다, 깨끗하다, 흠이 없다는 뜻으로 의의 세마포를 뜻합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표시로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와 청결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금 면류관이라는 말은 두 가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하나는 왕들이 쓰는 면류관이고 또 하나는 승리자가 쓰는 면류관입니다. 본문의 장로들은 왕들은 아니므로 승리자가 쓰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자가 쓰는 면류관은 왕적인 존귀를 상징하는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24 장로들이 서 있거나 누워 있는 것이 아니고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서 있다, 앉아 있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종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천사들의 경우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순종하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장로들은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귀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것은 만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주변에 가장 가까이 앉아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다는 것과 즐거움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둘러 앉아 있는 보좌의 앞에는 일곱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일곱 등불은 일곱 영입니다. 이는 성령 이외에 여섯 가지 영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일곱 가지의 성품을 가지신 성령, 완전하신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2. 네 생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 위에 눈이 가득하다”(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에 보면 성전 안에 물두멍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늘에 있는 유리바다를 본 떠서 만든 것입니다. 물두멍에는 항상 물이 있어서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성전에는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를 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그것을 본떠서 물두멍의 물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었다. 성경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물이라는 것은 깨끗이 씻는다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리바다를 통과할 때 죄인들의 모든 죄가 깨나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끼기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기를 통과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심을 받아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 그 보좌 주변에는 네 생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생물에 대한 견해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다 일리가 있는 견해들입니다. 먼저 어거스틴은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윌 보드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의 사대 성품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사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여호와의 종(송아지)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참 인간(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독수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사자는 하나님의

충현강단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2)

(계 4:1-11)



신성종

<목사·당회장>

능력을 뜻하고, 송아지는 덕성을 뜻하고, 사람은 지혜를 뜻하고, 독수리는 거동성을 뜻하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대 성품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네 생물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서 있는 위치, 그들에 대한 묘사, 기능을 자세히 보면 분명히 이들은 네 영물인데 하나님의 주변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근위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위치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자리로 그들은 24장로님들처럼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모습들인 것을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여섯 날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휘휘 나르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웠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위대하셔서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마다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두 날개로 발을 가리웠다는 말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너무도 더럽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겸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날개로 휘휘 날았습니다. 이것은 순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생물이 하는 일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속성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생물은 영광, 존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 생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9절)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영광은 내가 차지하고, 존귀도 내가 차지하고, 칭찬이나 감사도 내가 가로채고 하나님께는 욕이나 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존귀, 감사를 늘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 24장로들의 찬양

10절과 11절에서 예배의 모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서 경배했습니다. 예배는 경배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경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24장로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엎드리면 얼굴이 안 보입니다. 자기 생색을 내지 않아요. 요즘 예배를 보면 자기 생색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헌금드릴 때에도 생색내려고 하면 안됩니다. 엎드려 경배함은 겸손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개급장을 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들이고 그저 어린양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이들은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졌습니다.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물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오늘의 나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얻은 것은 그들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지만 우리의 할 말은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뿐입니다. 수고는 우리가 하되 모든 영광, 모든 경배, 모든 감사는 전 부 다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11절) 왜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섬리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이것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고 결론을 내려 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 가운데 하나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로 예배자는 항상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세여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받은 모든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하나님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대원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했는데 그것은 자기의 노래 솜씨를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이, 아니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우리의 중보가 되시며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 바뀌는 것 ②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협력 요청

교회 주차 지침대로 잘 협력해주기를
1부 교회학교는 오전 10시까지 필히 끝내도록
장로·교역자·여집사도 차량봉사요원으로 배치

오늘날 현대 교회의 부흥은 주차장 확보에 달려 있다는 말을 흔히 듣는다. 개인용 승용차가 점차적으로 보편화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실감나게 느끼게 된다. 교회는 이 일의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제2교육관 공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주차문제는 제1의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또한 비좁은 주차공간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심심찮은 시비가 오가기도 할 뿐더러 심지어는 주차를 못하고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이에 교회에서는 95년부터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주차지침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주차관리 요원을 대폭 강화시켜 주차문제가 심각함을 온 교인이 느끼므로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질서확립을 이루려고 한다.

이를 위해 장로·남녀 교역자들이 직접 차량관리 요원이 되어 주차관리를 하므로 주차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고 서로 질서를 지키며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많은 여성도들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기에 여집사 중에서 주차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자가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보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주차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다.

1부 교회학교 중 영아부~초등6부까지의 예배 및 분반공부 시간을 오전 10시까지 끝내야 한다.

1부 교회학교 학교중 오전 9시에 시작되는 교회학교가 끝나는 시간이 늦어지므로 자녀들을 태우고 귀가하려는 학부모들이 차량을 빼지 못하고 주차공간에서 기다리므로 Ⅲ부 예배(오전 11시)를 위해 오는 차량들이 주차를 못하고 교회 주위를 돌게 됨으로 오는 혼란은 참으로 안타깝

고 심각하다.

이에 교회에서는 오전 9시에 시작하던 1부 교회학교를 10분 앞당겨 오전 8시 50분에 시작하고 예배와 분반공부, 학생지도 등을 오전 10시까지 끝내어 Ⅱ부 예배(오전 9시)를 마치고 돌아가는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기다리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했다.

교회학교에서 이를 얼마나 철저히 지켜주는가 여부가 주차문제 해결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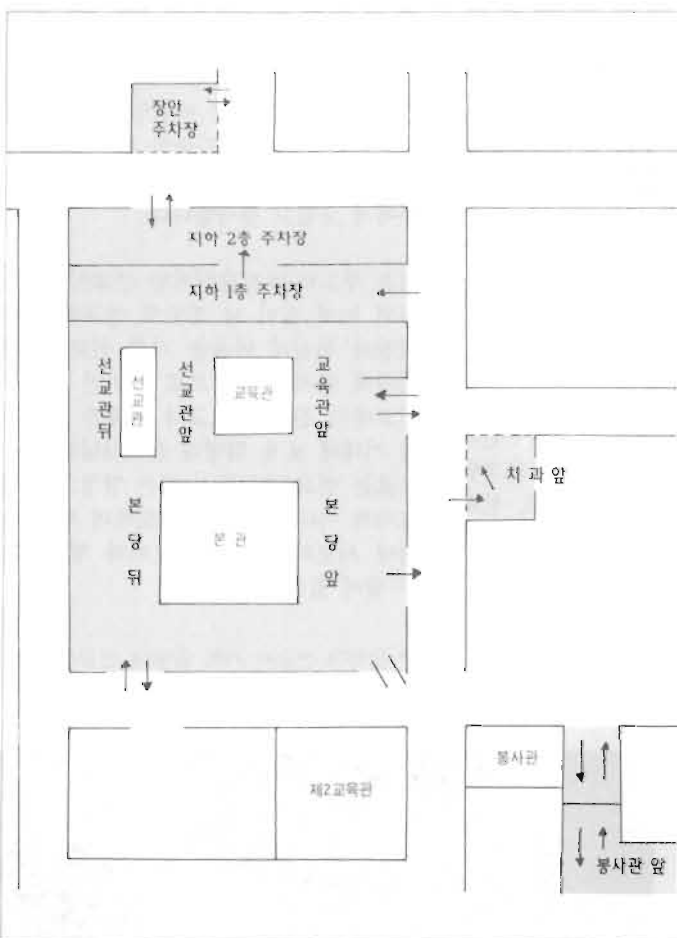
차량관리요원을 전문화 한다.

현재 예배안내위원들이 전문화되어 예배안내를 잘하는 경우와 같이 차량관리요원도 전문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복장과 태도, 주차공간에 대한 바른 이해, 차량 유도 등에 대한 지식 등을 갖추어서 주차장에서 서로 웃으며 양보하며 주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런 일에 봉사하고 싶은 사람들의 신청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원칙을 정하고 제도를 하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차량관리부에서는 주차질서를 위해 주차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차량을 가지고 오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주차지침을 지키도록 하자. 이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운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타나야 할 것이다.

주차장 약도



주차 지침

1. 대중교통 이용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2. I부, IV부 예배

주일 I부와 IV부 예배시에는 본당 앞에 주차를 삼가하여 주십시오.

3. 지체없이 이동

주일 II부와 III부 예배시에 본당 앞과 교육관 및 선교관 앞뒤에 주차하신 성도들은 예배 후 빨리 이동하여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 주십시오.

4. 종일주차

교회에 종일 계실 성도들은 지하2층에 주차하십시오.

5. 출입구

주차장 출입구 주변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차를 삼가하여 주십시오.

6. 통로에 주차

통로에 주차하는 성도들은 ① 사이드브레이크를 풀고, ② 기어는 중립에, ③ 핸들은 꼭 바로 세워 주십시오.

크를 풀고, ② 기어는 중립에, ③ 핸들은 꼭 바로 세워 주십시오.

7. 장시간 주차시

통로에 장시간 주차시에는 수시로 확인하여 주차지역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8. 방향지시등

주차장 출입시에는 방향지시등을 켜서 안내자들이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

9. 주차선

차량을 주차선 안에 정확하게 세워 주십시오.

10. 배기가스

배기가스가 화단이나 건물벽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11. 안내에 적극 협력

주차의 명랑한 분위기를 위하여 웃음으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 주시고, 안내자의 안내에 적극 협력하여 주십시오.

12. 장로, 안수집사

장로, 안수집사는 장안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전도사 3명 청빙, 부목사 4명 사임

임마누엘찬양대 지휘자도 부임

교회는 교구 개편에 따라 23개 교구에서 27개 소교구로 확대됨에 따라 소교구를 담당할 여전도사 3명을 청빙하기로 했다.

이옥자(좌측 사진, 만

48세) 전도사는 장로회 총회신학교를 졸업하고 장로회 총회신학교 여목회과를 졸업했다. 광림교회에서 5년동안 시무하기도 했고 1992년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했다. 6-2교구 담당 전도사로 일하게 됐다.



박종화(좌측 사진, 만 47세) 전도사는 84년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하며 할렐루야 찬양대 및 고등부 교사로 봉사해왔다. 88년에 서리집사로 임명을 받았다. 내년 2월에 한국여자신학교 졸업예정이다.

담당교구는 5-2교구.



한편 그동안 부목사로 일하던 김수상, 김양홍, 유창무, 이인우 목사가 사임했다.

박희자(좌측 사진, 만 42세) 전도사는 대구신학교를 졸업하고 대구 서현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울산 대영교회, 대구 달성제일교회에



그동안 공석으로 있던 임마누엘찬양대 지휘자에 장기범 선생(좌측 사진, 만 40세)을 임명했다. 장 선생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기악 트럼펫 전공)하고 미국 미시간 동부주립대학과 미시간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동안 청주대학교 음악과 전임강사, 서울대학 사범대학 교육학과 대학원 강사를 역임했고 평안교회, 평강교회, 흑석동교회에서 찬양대 지휘자로 일했었다.

II부 예배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찬양위원회(위원장 김은호 장로)에서는 II부 예배시에도 찬양 오케스트라 반주를 하기 위하여 II부 예배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한다.

단원 자격은 관현악 전공자로 세례 교인이어야 하며 학생도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11월 6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며 입단원서는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다.

김영대 선교사 파송예배 오늘 저녁 찬양예배시에

교회는 오늘(11월 6일) 저녁 찬양예배시에 김영대 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린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선교부가 파송기관이 되고 중헌교회가 파송교회가 되어 지난 2월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선교사 파송을 위해 준비하던 김영대 선교사가 중동교회권 선교사로 파송받게 된다.

토막소식

- ◆ 중등 1·2·3부는 지난 토요일(10월 29일) 오후 4-6시 30분까지 '94 시와 찬양의 밤' 행사를 갈릴리홀에서 성대하게 가졌다. 각 부에서 준비한 시와 찬양 외에 성극, 복음송 가수 전용대와 함께 찬양을 부르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 ◆ 고등부는 새로운 소그룹 선교부와 신입부, 영어성경공부반을 신설하고 각 회원을 모집하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 ◆ 대학부는 11월 5일(토) 대학부출신 선배들과 함께 하는 Home Coming Day로 모였고, 이날 신원 에벤에셀 박성철 회장을 강사로 "신앙과 경영"이라는 강의를 들었다. 오늘은 전도집회로 모이고 끝난 후 20여개 전문직업영역별로 나누어 직업준비와 신앙준비, 동역자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는다.
- ◆ 청년1부는 11월 5일(토)에는 천사의 집(지체장애아) 아동들과 함께 자연농원에 다녀왔다.
- ◆ 청년2부는 지난 주일(10월 30일) 면려회 총회를 가져 회장에 한홍연, 부회장에 홍석영(남), 박미순(여)을 선출했다.
- ◆ 장년3부는 11월 13일(주일) '장년3부

다함께 기도합시다

금주의 기도제목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 김창인 목사 : 특별히 건강을 지켜 주셔서 말씀 증거하시는 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 신성종 목사 : 7일(월) 목회자 세미나 강의, 9일(목) 한양기독교실업인회 특강
2. 대학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기억력을 새롭게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3.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능력을 주시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국정을 잘 다스려 이 땅에 우상과 미신을 타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부정과 불의를 물리치게 하옵소서.
4. 중헌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죄악을 물리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5. 선교사로 파송받는 김영대 목사님과 사모님과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옵시고 성령충만하여 구령사역을 계속하는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발전과 신앙심 고취'라는 제목으로 이두란 전도사의 특강이 있다.

◆ 소망부는 11월 20일(주일) 소망부 개교 20주년 기념예배로 드린다. 11월 27일에는 전도서 7장 1-14절을 대상으로 성경암송대회를 갖는다.

◆ 새가정부는 11월 3일과 20일 전주예

수병원 정신과장인 김 임 교수를 강사로 '성경적인 태아교육', '기도로 양육하는 엄마'라는 제목의 특강을 실시한다.

◆ 새가족양육부는 11월 13일 찬송가부르기대회를 연다. 지정곡은 88, 235, 410장 중 한국이고 각 처별로 실시한다.

이 사람을 만나보니 / 중동교회권 김영대 선교사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꿈, 모두에게 감사해

대학·청년들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획이 많이 있었으면

중동교회권 지역으로 파송받는 김영대 선교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 언제부터 선교사의 소명을 가졌고 선교를 위한 준비를 하셨나요?

▷ 현대교회(임승원 목사 시무)에서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갖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신대학원 1학년 때부터 MTI(Missionary Training Institute, 총회선교훈련원)에서 훈련을 받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에는 아세아연합신학원(ACTS) 선교학과에 가서 훈련을 받았지요. ACTS는 학교 목표가 선교지향적이고 아시아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와서 함께 공부합니다. 강의도 영어로 하기에 영어훈련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후 신장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해서 매월 첫주 저녁예배를 '선교의 밤'으로 정하고 ACTS에서 사귀어온 원주민 및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한국선교사들을 모셔온 교회가 선교에 대한 관심을 집중한 가운데 목회를 했습니다. 또한 작은 교회지만 선교사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6년 일하다가 지난 2월에 중헌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 가계될 지역은 중동교회권이라고만 발표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 우선 이집트의 AUC(American University of Cairo) 언어학교에 3년과정으로 아랍어를 배우면서 회교도의 습관, 신앙, 문화 등을 익히고 조사하면서 선교 전략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사역지를 찾아야 하는데 제가 갈 곳은 중앙아시아 지역, 흔히 중동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북아프리카의 '수단'도 포함됩니다. 이곳에 아랍어를 사용하는 회교권 국가가 22개국 있습니다. 이중에 한 나라가 되겠지만 북아프리카 수단이나 중동의 요르단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요르단은 중동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교통의 요지이고 회교권치고는 꽤 개방적인 나라입니다. 우선 성경반입이 자유로운 편이고, 개신교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3년후 여러 경로와 의논해서 될 일입니다. 우선은 중동교회권으로만 정했습니다.

▶ 그동안 중헌교회에서 느낀 점이 많았을 텐데요. 특히 선교와 관련하여?

▷ 중헌교회는 한국 교회에서 선교에 대해 기치를 든 교회이고 초창기 선교열정은 대단한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20여년 전인데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 여러 나라에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되었는데 도중에 사임하는 경우들이 있었지요. 앞으로 매우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 실시한 선교지역 탐방 내지 단기선교 같은 일들에 대학생, 청년들이 참여하여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학·청년들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위원회나 선교연구원을 통해 동참하는 일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저변확대라는 말을 많이

들는다. 선교라는 일은 이런 저변확대가 참으로 절실한 것이다. 온 교우들이 선교에 대해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동참하는 가운데 선교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선교연구원의 강의 위주에서 좀더 현실적인 프로그램과 교과과정을 편성할 수도 있고, 선교대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교회 교육에 일정 시간의 선교 교육을 교과과정에 편성할 수도 있고, 교회의 중요 책임 맡은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전체 지도층이 2~3년에 한번씩이라도 심도있는 선교세미나나 선교대회 등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우리 교회에서 복음주의적인 국제 선교대회를 개최하고 모든 교우가 동참하여 동기 부여와 선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 방안들도 있을 것이다. 교회는 '땅끝까지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제1차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볼 때 선교에의 지향을 교회에 제1의 과제로 놓는다면 능히 가능할 것이다.

▶ 앞으로의 일정 및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 파송예배 후 곧 집을 이집트로 옮기고 그 집이 도착하는 날짜에 맞추어 출국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큰 감사를 드리고, 선교위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랍어를 빨리 익히고 아랍민족을 사랑할 수 있어야 선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 모두에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길은 부드러운 모습이지만 선교이야기를 하면 눈에 빛이 날 정도로 선교에 대한 열정과 헌신의 마음을 가진 선교사님의 앞길에 마지막 땅끝으로 알려진 회교권 선교에서 진정한 선교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해 보자. 김영대 선교사님의 가족으로는 선교사님 못지 않은 열정으로 선교사의 아내가 되기를 기도하며 만난 박영애 사모와의 사이에 은비와 영화라는 두 딸이 있다.(형)

▼ 김영대 선교사 가족. 김영대 선교사와 사모 박영애, 두 딸(좌측이 영화, 우측이 은비).

